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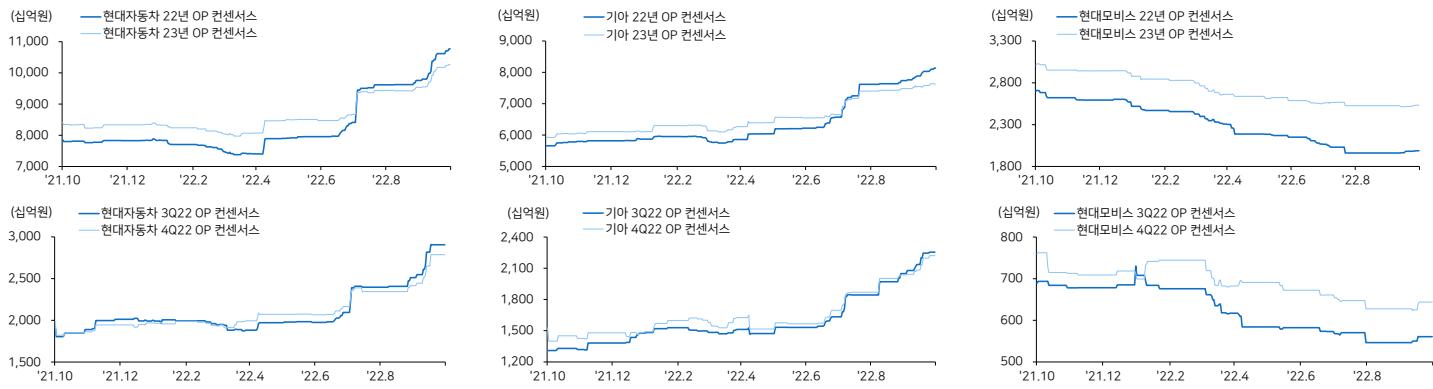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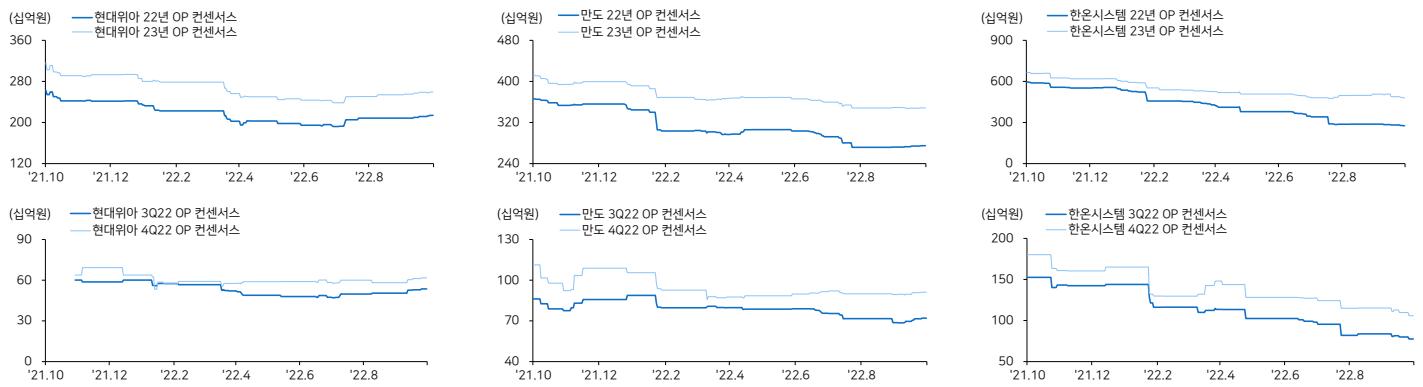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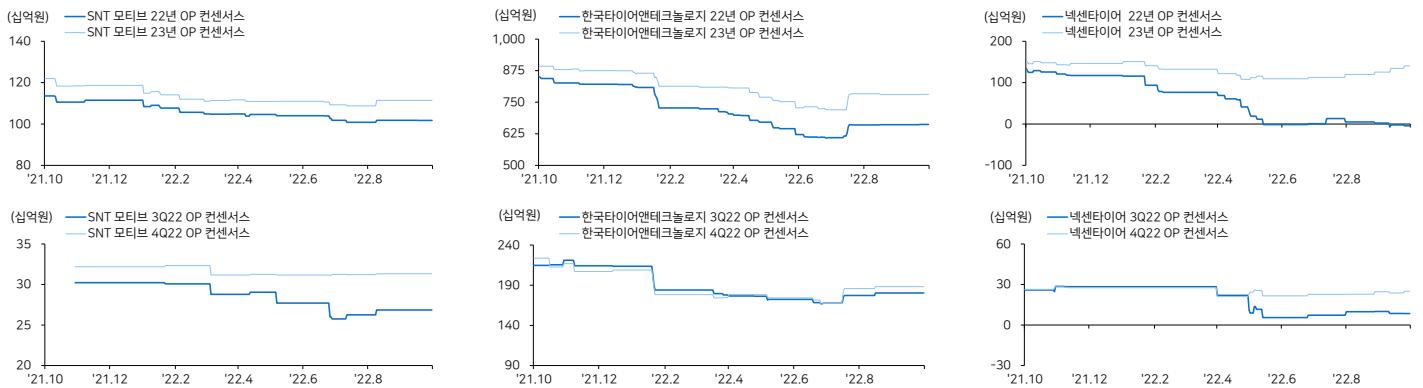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고차 '가격 역전' 현상 없어질 전망 (중앙일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앞으로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 케이카는 최근 높아진 물가와 금리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신차급 중고차의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

<https://bit.ly/3fvW6Q8>

### GV80 사례면 '30개월 대기'..車 출고 적체 깊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인기 차종의 출고 지연이 이달 들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국내 대기 물량이 100만대 이상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은 출고 적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금리 상승이 신차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업계는 내년 상황을 주시.

<https://bit.ly/3FGqe6B>

### China EV deliveries: Messy October, will there be rebound next? (CNEV Post)

중국 주요 EV 제조사들이 10월 인도량을 발표, Covid로 인한 생산 문제로 전반적으로 출하량 악세를 보인 가운데, 신차싸이클과 보조금 효과로 인해 11월 12월 더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는 의견.

<https://bit.ly/3h8Nhfp>

### Geely's Zeekr plans electric vehicle sales in Europe in 2023 (Reuters)

중국 자동차 업체 Geely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Zeekr가 2023년 유럽 진출을 선언. 001 크로스오버 EV 모델을 처음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판매목표나 생산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음. 중국 EV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는 중.

<https://reut.rs/3DXZE7s>

### 올해 판매된 자동차 100대 중 13대는 전기차 (경향신문)

클립테크니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신차 중 13%는 전기차(BEV)로 집계. 월별로 지속 상승 중인 전기차 등록대수와 침투율 상승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표.

<https://bit.ly/3Nxpou>

### 반도체 수급난 완화 뚜렷...차업계 고속질주 시동 (데일리안)

자동차 업계의 생산차질 원인이 됐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해소 중. 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급난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반도체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 비용적인 면에서는 당분간 고충이 지속될 전망.

<https://bit.ly/3TzKp8k>

### Tesla price cuts are putting pressure on China's local EV champions (Teslarati)

테슬라의 중국 가격 인하가 로컬 EV 업체들의 10월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향후 중국의 메이저 EV 업체들의 판매량과 가격 경쟁을 통해 테슬라 가격 인하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s://reut.rs/3DYa5lc>

### Defying gloom, Ferrari sees strong demand for luxury cars (Reuters)

페라리가 럭셔리카에 대한 강한 수요를 예측함. 특히 3분기 중국 지역 출하량이 yoy +73% 증가했으며, 조정 EBITDA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17% 증가한 4.3억 유로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 올해 EBITDA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됨.

<https://reut.rs/3DYa5lc>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으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